

민노총 운수노조, 시내버스 한시 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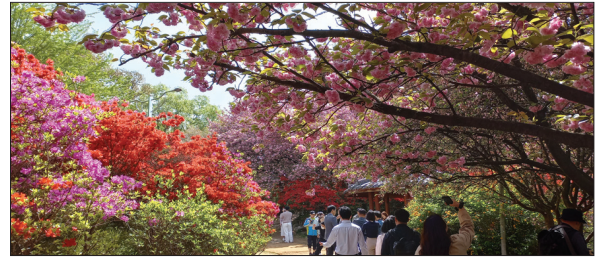
전주시,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마을버스 예비차량 긴급 투입 등 긴급 대책 나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이하 노조)는 전일여객·시민여객(이하 사측)과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7일 추가 파업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된 만큼, 비상 대책 상황을 가동해 파업 상황을 시민들에게 집중 안내했다. 또한 결행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민성 혁신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예비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전주

대→혁신→민성→팔복동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주시내버스 5개사 중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2개사의 노조가 참여하며, 총 31개 노선 95대(23.9%)의 버스가 일부 미운행 될 것으로 예상돼 배차시간 증가 등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미운행 예상 노선은 평화동과 송천동, 인후동, 혁신동, 민성동 지역에서 운행되는 △75번 △79번 △101번 △102

번 △103-1번(103-2번) △104번 △110번 △309번 △339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430번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 △752번 △820번 △970번 △999번 △3-2번 △6001번 △3001번 △3002번이 해당된다. 이에 시는 △차량 운행 상황 실시간 파악 민원 안내 △불편 예상 지역 마을버스 예비차량 긴급 투입 △택시 적극 운행 △교육청, 유관기관 등 중점 홍보 협조 등 파업 상황을 실시간 공

유·협력해 파업에 대비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3월에도 3일간 출퇴근시간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총370여 회를 미운행한 바 있다. 삼규문 대중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다시 반복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노사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하면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파업과 결행 사항은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063-272-8102, 8103), 전주시청 버스정책과(063-281-2644, 2399, 24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겹벚꽃과 진달래, 철쭉 등 봄꽃이 만개한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에 지난 주말 약 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봄꽃 만개 '완산공원 꽃동산'

전주시, 겹벚꽃·철쭉 등 절경... 주말 4만명 다녀가

전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들 간 전국에서 봄꽃을 즐기기 위해 약 4만 명의 상춘객이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완산공원 꽃동산의 면적은 약 1만5000㎡(4500여 평)로, 철쭉과 겹벚꽃,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나무가 1만 그루가량 식재돼 매년 봄 개화한 꽃들로 인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인근에 거주하던 시민이 1970년대부터 여러 꽃나무를 심고 40여 년 동안 가꾸온 공간으로, 시는 지난 2009년 해당 토지와 꽃나무를 매입한 후 각종 나무를 이식 및 추가 식재하고 산책로와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파스한 봄기운이 만연하면서 꽃동산 내 대부분 겹벚꽃과 철쭉이 활짝 피어나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다. /김욱기 기자

꽃동산을 찾은 상춘객들은 길을 가득 채운 겹벚꽃과 철쭉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만끽했다. 완산구청 직원과 완산동 주민, 경찰 등은 기대감을 안고 꽃동산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환경 정비와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SNS에서 꽃동산 사진을 보고 바로 전주 여행을 계획했다는 한 관광객은 "겹벚꽃을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시기를 잘 맞춰 방문해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내년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방문객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공원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따뜻한 날, 즐거운 봄 소풍' 시민장터 개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서 20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는 오는 2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웃간 마음을 나누는 나눔과 소통의 장인 '2024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한다. 올해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는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5월 25일 △6월 29일 △9월 28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

행되는 이날 시민장터는 '따뜻한 날, 즐거운 봄 소풍'을 주제로 △수공예품 등 16개 부스 판매 장터 △체험장 부스(12개) 운영 △추억의 문방구 운영 및 게임 △서커스 공연 △쇼사탕 공연 △버블쇼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모두 즐길 수 있는 놀이장터에서는 △신날 양궁 △주사위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플

리마켓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는 노송광장 곳곳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파라솔을 설치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는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구급용품 비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한다. 김혜숙 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첫 번째 열리는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시민장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자활근로 참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주시는 17일 시청 강당에서 2024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자활근로 참여자의 안전과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가 초빙돼 △안전관리 이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산업재해 사고 발생 원인 △사고 사례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 및 특징 △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에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뤄져 참여자의 이해를 높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시가 직접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는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7일 K-컬처캠퍼스 조성 사업 현장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 K-컬처캠퍼스 조성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 의원)는 17일 K-컬처캠퍼스 조성 사업 현장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성길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콘텐츠 생산을 위한 소재, 장비, 공간을 한곳으로 집적화하는 문

화사업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K-컬처캠퍼스 조성 현장에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성공적인 K-컬처캠퍼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주시가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시는 18일부터 완산구 평화동과 덕진구 인후2동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3년 디지털타운조성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 1단계를 시행하는 등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시는 행안부·네이버클라우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초거대 AI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기술지

원 활용 컨설팅 및 관제센터 운영 연계 등 세부 사업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달 초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상담 최종 모델 확충 테스트가 마무리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정보 입수 대상 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 시 초거대 AI(네이버 클로바 케어콜)를 도입, 대화형 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개별 분석 자료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AI가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